

2020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	2020.04.07
위원정수 10명	참석 9명

1. 회의일시 : 2020년 4월 14일(화) 11:00
2. 회의장소 : 솔브릿지 회의실
3. 회의안건 :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학교기업 포함) 결산(안) 심의
4. 의원참석 현황

구분	직위	성명	참석	불참	비고
위원장	교수	박승익	○		
위원	교수	변재중	○		
	총무처장	조을연	○		
	학생과장	오제훈	○		
	외부전문가	윤여동	○		
		김현채	○		
	학부모	이현수	○		
	학생	김영훈	○		
		윤종민	○		
		서화장			○

위원장(박승익) : 지금부터 우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조을연) :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10명 중 9명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박승익) : 오늘 회의 안건은 학교기업회계를 포함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조을연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조을연) : 우리 대학은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학교기업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다.)

위원장(박승익) :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비회계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윤여동) : 지속적으로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음에도 장학금 등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적립금 인출 등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아 보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향후 대학 특성화 추진과 학생 교육에 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조을연) : 정부 시책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10여년간 동결되고 있고, 입학금은 매년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종 대학평가 지표를 관리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장학금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로인해 2019회계연도에도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을 인출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장학금 지급,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지표관리는 물론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립금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원(김현채) : 학교기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손실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 원(조을연) : 학교기업은 학생들이 실제로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현장 집중형 창업실습 공간입니다. 매출이익보다는 현장실습을 통한 창업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질 좋은 재료로 영업 현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손실이 발생하였고 슬과인의 경우 교비에서 전출금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 원(이현수) : 학교에서 재정을 많이 투자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가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오제훈) : 학교에서는 무분별한 교원 채용보다는 풀보퀴즈, CETT, INBP, 4Lab 등 글로벌 조리 및 IT,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내·외국인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실무 중심교육을 통한 학생 취·창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 원(조을연) : 우리대학은 특성화교육을 통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고 있으며 동일규모 대학 중에서 취업률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위 원(윤여동) : 비등록금회계의 수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 원(조을연) : 비등록금회계는 외국인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학생들의 등록금과 한국어교육원, 철도아카데미, 공자아카데미 등 부속기관에서 수강료와 국가장학금 및 교육부 지원사업비, 법인전입금, 교내시설물 대여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외 수입이 증가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박승익) : 우리 대학은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학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원(이현수) : 우송수련원이 많이 노후 되었는데 주변 시설과의 경쟁력 강화와 교직원 및 학생 복지시설로서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시설 개보수는 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 원(조을연) : 우송수련원은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자가 계속 감소하고 주변 시설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려 있었습니다. 비록 건축적립금으로 시설을 개보수 하였으나, 최신 시설로 개보수하여 이용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 원(이현수) : 법인부담전입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 원(조을연) : 법인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4대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 전입금입니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르면 법인에서 임명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부담금에 대한 기관부담금은 전액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부담할 경우 별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법인부담전입금은 1,830,000천원으로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부담금 기관부담금은 100% 충족하고 있습니다.

위 원(변재종) :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대한 잉여금 처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 원(조을연) : 교육부의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르면 등록금회계의 2019회계연도 차기이월 자금과 2020회계연도 본 예산에 편성된 전기이월자금의 차이가 발생 할 경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2019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차기 기타이월 자금은 673,780천원으로 2020회계연도 본 예산에 편성된 전기 이월자금 700,000천원 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 할 예산은 없습니다.

위 원(김현채) : 대학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적립금이 있어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립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 원(조을연) : 건축적립금은 등록금회계에서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전출하여 적립할 수 있으나, 교육비 증가로 300,000천원을 전출하여 예금이자 수입액과 함께 적립하였습니다.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특수목적적립금 또한 예금이자 수입을 적립하였습니다.

위 원(김영훈) : 등록금을 동결하였음에도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고보조금 수주와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 지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걱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위원 전원 동의하다.)

위원장(박승익) : 위원님들께서 교비회계 결산에 대해 심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윤여동) :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로 학교기업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에 대한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박승익)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위원 전원 재청하다.) 그럼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학교기업 포함) 결산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할 것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변재종 위원, 오제훈 위원, 조을연 위원을 대표 서명자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전원 : 이의 없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등록금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원 변 재 종

위 원 오 제 훈

위 원 조 을 연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서 명
교직원	박 승 의	박 승 의
	변 재 종	변 재 종
	오 제 훈	오 제 훈
	조 을 연	조 을 연
전문가	윤 여 동	윤 여 동
	김 현 채	김 현 채
학부모	이 현 수	이 현 수
학 생	김 영 훈	김 영 훈
	윤 종 민	윤 종 민
	서 화 장	